

## <5강> 풍경 지우기 혹은 만들기

18세기의 ‘그랑 투어리스트’는 여행 끝에 클로드 로랭의 복제풍경화를 구매해서 돌아갔고, 20세기의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풍경엽서를 사거나 사진을 찍음으로써 여행을 기억한다. 풍경은 철저하게 인간의 시선을 위해, 인간의 시선 속에서 존재해왔다. 풍경은 비가시적인 자연이 인간적으로 가시화된 문화적 영역이다. 화폐가치로 사물을 위계화하는 자본주의적 태도와 미적 가치로 사물을 의미화하는 미학적 태도는, 여기서 우아하게 조우한다. 자연을 그 모두의 가치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면, 아마도 풍경은 사라지거나, 전혀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되리라.

“자본주의적 가치 증식 체계를 비난하는 것은, 다른 모든 가치 증식 양식을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는 일반적인 등가물이라는, 그것이 지닌 성격 때문이며, 결국 다른 모든 가치 증식 양식은 자본주의적 가치 증식 체계의 헤게모니 아래에서 소외되어 버리기 때문이다.”(가파리) 자본주의적 가치체계는 세계의 모든 풍경을 동일한 방식(태도)으로 소비하게 한다. 좋은 풍경이 있으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라는 것! 유용한 자원을 제공하거나, 그렇게 불거리화되지 않는 자연에는 별 관심이 없다. 심지어 사막을 스키장으로 만들어놓고는, 와서 즐기란다. 스키를 타면서 태양이 이글거리는 사막을 보는 체험, 정말 환타스틱하지 않느냐고! 이건 무시무시한 폭력이다.

풍경은 자연에 덧씌워진 인간적 시선이다. 그 폭력적인 시선을 벗겨내고 자연에 풍경을 돌려줄 수는 없을까. 혹은 자본의 시선이 아닌 다른 시선으로 새로운 풍경을 생산할 수는 없을까. 인간의 일방적인 시선을 거두고, 자연과 시선을 나누고 공명할 수는 없을까.

캐나다 작가 마이클 스노우의 영화 <La Région Centrale>는 공간에서 부유하는 눈-카메라로 하늘, 수평선, 산맥, 산들의 바다, 구름, 일출, 일몰을 바라본다. 이 눈은 바라보지만, 그 ‘바라봄’은 언제나 불어오는 바람, 온도 등에 따라 방향을 바꾼다. 어떤 인간화된 미학적 시선도 여기서는 배제된다. (“나는 행성전체의 인간화를 생각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 “나는 내 마음과 몸, 기계가 야생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기록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식민지화하지도 노예로 삼지도 않는다. 나는 그것을 거의 차용하지 않는다.”) 그 결과, 카메라에 담긴 것은 풍경이 아니라 지워진 풍경, 볼 수 없는 것들의 풍경, 혹은 풍경이 사라진 세계이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이 ‘볼 수 없는 것’(공기, 힘, 무거움과 가벼움, 빛...)이어야 하지 않을까. 또, 우리가 생산해야 하는 것은 ‘더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삶의 자리’여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파괴 이전의 자연’이 아니라 삶을 치유하고 생산하는 자연의 치유력 자체가 아닐까.

풍경은 인간의 탄생과 함께 ‘발견’되었다. 때문에, 풍경이 사라지기 위해 먼저 사라져야 하는 것은, 인간 자신인지도 모른다. 인간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 한, 새로운 풍경도, 새로운 삶도 불가능할 것이다.